

옛 향기 그윽한 고전적이 한자리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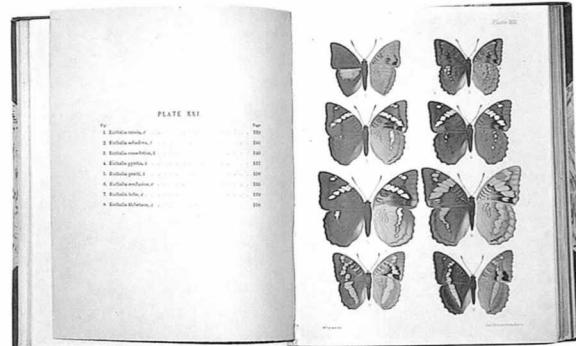
제3회 서울국제고서박람회 열려

한국고서협회(회장 여승구)가 주최하는 제3회 서울국제고서박람회가 지난 4월 13일부터 4일간 서울 종로구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렸다. 94년부터 해마다 열린 이 행사는 올해부터 '국제고서박람회'로 개편돼 열린 첫 전시회라는 점에서 더욱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.

이번 박람회에는 네덜란드, 영국·일본 등 3개국 4개 고서점과 국내 고서점 17개사가 21개 부스로 참가, 종교와 역사,

철학, 문집·족보·간찰·고문서·양장본 등 2500여점에 이르는 고전적을 출품했다.

특히 런던에서 1818년에 출판한 『황해안 여행기』(바실 훌 지음)나 한말 격동기를 목판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기술한 신문 컬렉션,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사진이 담긴 독일 베를린 올림픽 화보 『올림피아』(1936) 등 귀중한 해외 자료들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. ♦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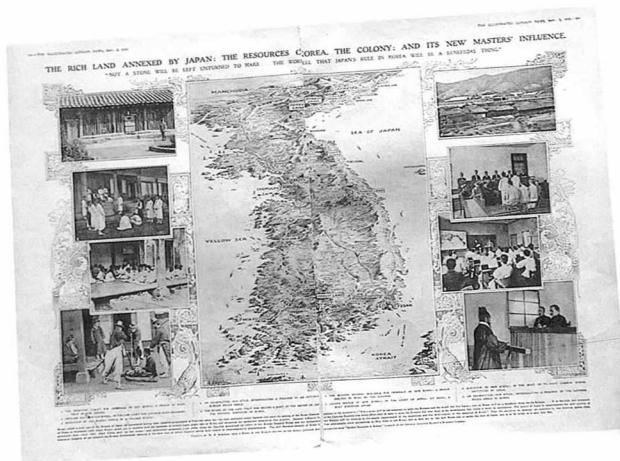
『Butterflies from China, Japan, And Korea』(전3권) (London, R. H. Porter) 1892~1894년.



독일에서 나온 베를린 올림픽 화보 『Olympia 1936』. 흑백과 컬러의 인화사진을 직접 책에 붙여 만든 것이 이색적이다.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실물사진도 담겨 있는 희귀자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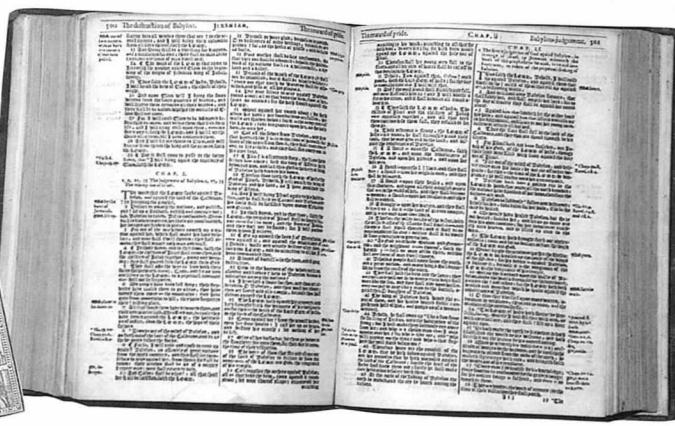
『Japanese Fairy Tale Series』(전5권) 독특한 재질의 종이와 컬러 일러스트가 이색적. (하세가와, 1898년~, 도쿄)



『The Illustrated London News』(Korea Collections). 한말 격동기의 한국사회를 목판 삽화, 사진을 곁들여 기술한 신문 컬렉션, 1843~1911년까지 모았다.



《The Holly Bible Containing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》(1634년, 런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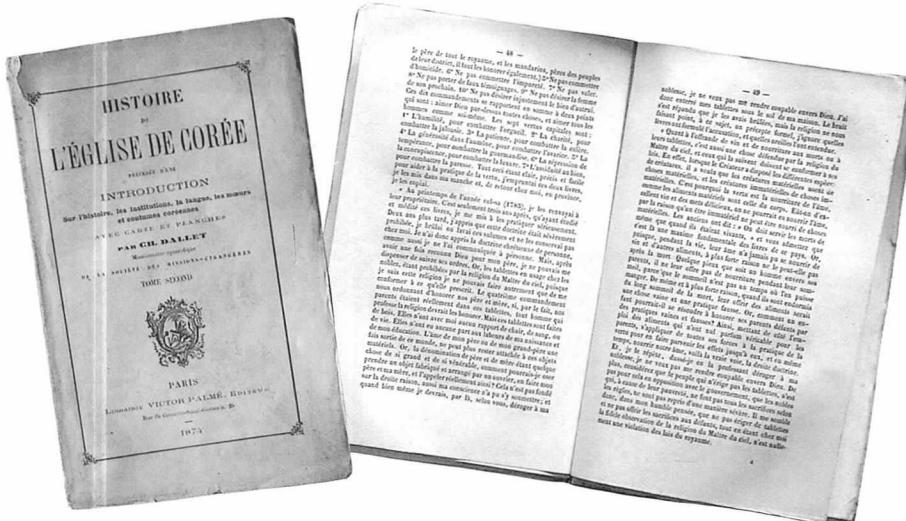
《해동이적(海東異蹟)》(1670년 宋時烈 著).



라틴어로 된 《Bible》. 16세기 중기에 제작된 116장의 목판화가 수록돼 있다.



《A Map of Kuan-Tong or Lea-Tong Province and the Kindom of Kau-Li or Corea》(19세기, 영국)



《History De L'eglise De Corée》. 1874년 파리에서 나온 달레이의 《한국천주교회사》의 초판본.



《주자서절요(朱子書節要)》(1500년경 목판, 이황)



《묘법연화경》(1447년, 을해자)